

지방선거 D-8 곡성군수 후보초청 토론회

광주일보·KBC 공동

농업예산 확충·문화관광산업 공방

광주일보와 KBC는 22일 오후 6시부터 열린우리당 고현석, 민주당 허기하, 무소속 박정하, 무소속 조형래 후보 등 5·31 지방선거 곡성군수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예산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차마을·심청축전 등 각종 문화사업과 관련, 후보자들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고 현 석
열린우리당

“친환경농업 관광과 연계 소득 창출”



허 기 하
민주당

“인구감소·재정자립도 하락 군수 책임”



박 정 하
무소속

“항일유적지 성역화 전국 명소로”



조 형 래
무소속

“심청축전 정부지원 한푼도 못받아”

◇ 모두발언

▲고현석=군수직을 하면서 곡성을 전국적으로 알렸고, 청렴해서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소득을 올리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곡성을 만들고 싶어 다시 도전했다.

▲조형래=초대 민선군수를 하면서 강력한 추진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능력을 국민들에게 검증 받은 바 있다. 당선되면 초대 민선 정신으로 일할 것이다.

▲박정하=항토사를 바탕으로 한 관광 레저도시에서 곡성의 희망을 찾고자 한다. 생동감있는 전략을 펼쳐기 위해서는 고향애로 뚝뚝 뚝뚝 지도자가 필요하다.

▲허기하=지난 4년간 곡성 인구의 16.8%가 줄었다. 예산은 전남 시·군 중 꼴지에서 두번째다. 현직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상호정책토론

▲조형래=농업분야에 집중 투자 하겠다. 17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현 군 1년 예산을 350억까지 두배로 늘리겠다. 권역별 성장 인프라 확장과 지역간 균형발전, 노인복지 정책에 힘쓰겠다.

▲박정하=농업 예산 부분을 200% 늘리면 다른 부분에 파장은 없었다.

▲조형래=농업분야는 국도비 부담금이 약 60% 정도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군비부담은 60, 70억원만 가지면 된다. 문화나 환경에서 실비 투자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고현석=농업예산을 늘리면 권역별 개발과 노인복지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형래=우리 군 예산이 130억이고 교부세는 800억이다. 군수가 군정의 방향을 문화관광과 농정 중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가능할 것이다.

▲허기하=곡성에는 항일 유적지가 많다. 항일유적지와 곡성을 오일시장, 기차마을을 연계 개발해 전국 학생들의 수학여행 답사코스로 만들겠다. 곡성만이 갖고 있는 항일 유적지를 성역화해 전국적인 관광유적지를 만들 것이다.

▲조형래=지난 8년간 곡성군이 추진해 온 것이 문화·관광·환경사업으로 엄청난 돈이 투입됐다. 다시 문화사업을 벌이면 재

정이 가능하겠나.

▲허기하=성역화 사업은 공적자금을 활용되 편익시설 등은 민자유치를 통해 할 것이다.

▲고현석=기차마을을 실패라고 보나. 주민들의 견해는 다르다.

▲허기하=기차마을은 다른 문화벨트와 연계를 안 하면 미흡하다고 본다.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성역화 사업을 해야 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기차마을은 실패 안 할 것이다.

▲박정하=곡성군의 전 시가지지를 심청을 주제로 한 관광 레저 도시로 만들겠다. 곡성만의 역사성을 지닌 항토사를 항토 상품화할 것이다. 섬씨 씨족 뿌리 공원을 만들어 보겠다.

▲허기하=심청사업은 이제 시작인데 그것을 테마화해 또 투자하면 무리가 아닌가.

▲박정하=가능하다. 이전의 심청 축제는 강변에서 소모성으로 기획해 해왔다. 이것을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조형래=문광부에서 심청을 인정 안하고 있다. 강진의 도자기 축제는 7억5천만원을 받는데 반해 심청축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았다.

▲박정하=심청사업에 대해 시정될 것은 시정돼야 한다. 짧은 헐기로 내가 관리해온 곡성인들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고현석=친환경 농업을 확실히 뿌리 내리고 농촌관광을 연계 육성해 지역소득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또 자녀교육 지원사업을 확실히 정착시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

▲허기하=곡성에 과연 친환경농산물을 심었을 경우 재 값을 받고 팔 수 있을까.

▲고현석=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재 값을 받지 못한다. 관공부문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곡성을 꾸준히 찾도록 해 신뢰를 쌓으면 농산물판매의 확실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조형래=“친환경보조금 흥청망청”이라는 한 TV방송보도에는 곡성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국에 방영됐는데.

▲고현석=친환경농업은 초창기다. 농법도 안정이 안 돼 있다. 민간이 해 오던 것을 공인 해 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생겼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보도하는 것은 문제다.

/정리=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광주시장 후보 동행 인터뷰 민주당 박광태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가 지난 21일 증심사 입구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한표를 부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의 마당쇠 더 일할 기회 달라”

박광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색으로 말하면 원색에 가깝다. 너털웃음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직선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그의 화법 때문이다.

22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박광태 후보는 특유의 화법을 통해 자신감과 열정이 담긴 주장을 쏟아냈다. 박 후보는 우선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민심이 사실상 호남 민심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장 선거 결과는 추후 정계계권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예정된 수순이며 이후 여권은 분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광주시민이 민주당 후보들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야 추후 정계계권 과정에서 호남 민심과 민주당이 민주개혁세력 통합 및 정권 재창출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까지 일자리 13만4,000개 창출 LED 밸리 조성·디지털 가전산업 육성

국회의원 3선과 국회 산자위원장의 관록을 과시하듯 박 후보는 “지방선거 이후 민주·개혁 세력은 창조적 파괴의 수순을 거쳐 보수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사무실에서 정책선거 선포식을 마치고 말바우 시장 유세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박광태 시장 후보는 “그동안 침체를 거듭하던 광주 경제는 이제 불이 붙은 상황”이라며 “여기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광주는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180도 바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임기동안 삼성전자 등 288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공단이 모자라 추가로 200만평을 확보 조성할 계획”이라며 “4년 전 광주시의 예산 규모는 7천억원대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조 2천억원대로 5천억원이나 늘어났으며 이는 그만큼 광주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말바우 시장에서 박광태 후보의 유세는 거침없었다. 선거 구호인 ‘부자광주, 1등 광주’를 내세우며 LED 밸리 조성, 자동차 생산규모 80만대 달성, 첨단부품 소재산업, 디지털 가전산업 육성 등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박 후보는 “오는 2010년까지 일자리 13만4,000개를 만들어 광주의 아들, 딸들이 직장 때문에 광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첨단지역으로 거리유세를 옮긴 박 후보는 시민들에 “광주의 마당쇠에게 4년 더 일할 기회를 달라”며 “배신 정당이며 무능한 정당인 열린우리당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고 민주당과 함께 희망을 키워 나가자”고 호소했다.

박 후보가 거리 유세를 마친 시각은 밤 9시. 선거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박 후보는 “광주를 위해 일했고 또한 광주의 희망을 위해 다시 뛰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며 “광주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제 시장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노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년층 복지사업인 노년층 복지사업(노년층 복지사업)은 노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년층 복지사업(노년층 복지사업)입니다. 노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년층 복지사업(노년층 복지사업)은 노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년층 복지사업(노년층 복지사업)입니다.

